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Psychological Experience of Chinese gold, silver, and bronze medalists in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탕홍부(한국체육대학교 박사과정) · 윤영길*(한국체육대학교 교수)

Hong-fu Ta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Young-Kil Yu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과 메달에 따른 심리경험 특징을 탐색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020년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979개 심리경험 인터뷰를 원자료로 채택하여, 귀납적 내용분석을 진행하고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을 산출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은 목표의식, 훈련과정, 기술숙달, 성공적컨디션닝 등 세부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세부영역은 대회준비, 컨디션닝 성패, 사명감 등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대회준비,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순으로, 은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컨디션닝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순으로, 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컨디션닝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올림픽 금메달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목표의식, 투지, 훈련과정, 국위선양 순으로 나타났고, 심리컨디션닝, 컨디션난조는 도출되지 않았다. 은메달리스트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컨디션난조, 목표의식, 심리컨디션닝, 훈련과정 순으로, 동메달리스트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투지, 목표의식, 컨디션난조, 국위선양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목표의식, 훈련과정, 성공적컨디션닝은 금·은·동메달리스트 구분 없이 빈도비율이 높은 반면, 기술숙달, 컨디션난조 등은 금·은·동메달리스트 사이 빈도비율의 차이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the Chinese gold, silver and bronze medalists in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per their medal type. 979 psychological experience interviews with Chinese medalists at the 2020 Tokyo Olympics were adopted as raw materials, and induc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frequency ratio of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gold, silver, and bronze medalists was calculated and compared. First,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Chinese medalists at the 2020 Tokyo Olympics were categorized into detailed areas such as goal consciousness, training process, skill proficiency, and successful conditioning, and general areas such as competition preparation, conditioning success, and mission. Second, the frequency ratio of psychological experience of Chinese gold medalists at the 2020 Tokyo Olympics is in the order of preparation for the competition, sense of duty and gratitude, and leadership in the operation of the game. In case of the silver medalists, the most frequent psychological experience was conditioning, followed by preparation for the competition, hegemony of the game in their order. In case of the bronze medalists, the most frequent experience was conditioning, followed by preparation for the competition, hegemony of the game in their order. Thirdly, the frequency ratio of the Chinese Olympic gold medalists in the 2020 Tokyo Olympics in the detailed areas of psychological experience was in the order of goal, followed by fighting spirit, training process, national prestige in their order. No evidence was found in terms of psychological conditioning and bad condition. The silver medalists' most frequent psychological experience was bad condition, followed by sense of goal, psychological conditioning, training process in their order. The bronze medalists' most frequent psychological experience was fighting spirit, followed by sense of goal, bad condition, national prestige in their order. Fourthly, the most frequent experiences in common among the medalists were sense of goal, training process, successful conditioning, while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differed among them in terms of perfection of the techniques, and bad condition.

Key words : 2020 Tokyo Olympic Games, Chinese Medalist, Psychological Experience

* ykyun@knsu.ac.kr

1. 서론

올림픽 출전은 모든 선수의 목표이고, 올림픽 메달은 운동선수로 최고의 성취이다. 자신의 모두를 경기에 쏟은 올림픽 시상대에 선 선수는 시상식 순간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금메달에 세상을 모두 얻은 선수, 동메달에 기뻐하는 선수, 밝은 미소로 은메달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도 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은메달리스트도 있다. 어느 올림픽부터인지 대한민국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는 밝은 미소로 시상대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침울한 표정으로 시상대에 오르는 다른 나라의 은메달리스트나 동메달리스트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수 스스로의 메달 획득 인식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개입될 수 있는 개연성을 시사한다.

올림픽 출전은 선수에게 특별한 경험이다. 올림픽은 대회성격, 사회적 관심, 대회구조, 심리경험, 경기력 향상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대회와 차별화된다(윤영길, 전재연, 2010). 올림픽 출전은 선수로 인정받고, 선수로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재정적 후원이나 경제적 이익(Wylleman, Reints, & Van Aken, 2012), 경제적 안정의 지렛대(Coakley, 2011)가 되기도 한다. 올림픽 출전 경험은 선수에게 펀더멘틀 개선, 정서적 안정, 동기유발, 경기력 변화의 긍정적 계기가 된다(윤영길, 전재연, 2010). 또한 선수는 올림픽 출전 경험에서 심리적 자원을 확보하고, 신체적으로 강건해지는 동시에 개인적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기도 한다(유현숙, 2005). 이처럼 올림픽 출전은 선수에게 특별한 경험이자 변화의 동인이며, 경기력 도약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올림픽 출전은 선수에게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선수나 지도자는 특별한 전환점을 거치면서,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올림픽 성적에 관심이 증가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부담이 커져간다. 때로 올림픽 출전선수는 올림픽 출전으로 불확실성 증폭, 동기약화, 성취 증후군 등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기도 한다(윤영길, 전재연, 2010). 올림픽은 사회적 관심이나 중요성으로 인해 선수나 지도자에게 압박감이 크다. 선수는 올림픽 준비부터 이어지는 압박감으로 대회 기간 실망이나 좌절,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Henriksen, Kristoffer, et al. 2020). 또한, 타인의 기대나 경기력 부담으로 인한 압박감을 경험하기도 한다(Jackson, Dover, & Mayocchi, 1998).

이처럼 올림픽 출전은 물론 성취는 선수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올림픽 메달 획득 직후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최은경, 윤영길, 2010)에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차 성취 증후군, 심리적 압박감, 관계방식 약화, 산만해진 일상, 높아진 눈높이 등으로 심리적외상을 경험하기도 한다(윤영길, 전재연, 양은심, 2012). 올림픽 성취는 심리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1976 몬트리올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여자배구팀 선수는 메달 획득 40년 경과 시점에서 올림픽에서의 성취를 자신의 삶에 성실, 감사, 도전, 관계 유연성의 심리자본 형성의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김현주, 윤영길, 2017). 이처럼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과 출전 성과는 가까이에서는 희극이고, 조금 떨어져보면 비극일 수도 있지만 더 멀리 보면 희극이다.

올림픽 출전과 올림픽 출전 성과는 어떤 선수에게든 최상 수행의 결과일 수 있다. 최상수행은 평균 경기력을 초월한 상태이거나 최적 또는 최상의 수행력이 발현된 상태이다(jackson & Roberts, 1992). 최상수행 상황에서 선수는 명확한 초점, 자발성, 내·외부 어려움으로 부터의 자유, 자아, 힘, 활력의 표현(Privette, 1981), 초월적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Harung, Heaton, Graff, & Alexander, 1996). 또한 최상수행 과정에서 선수는 고도의 집중 몰입, 에너지 사용의 자동화, 쉬운 수행,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이완된 느낌, 자신과 수행 능력 제어,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음, 자신감에 대한 강한 믿음, 즐거움 등 특징으로 인식된다(Cohn, 1991).

선수의 최상수행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최적의 심리상태는 최상수행 발현의 필요조건이 된다. 실제로 집중력, 자신감, 긍정적 사고, 감정관리, 동기부여는 선수가 최상수행 도달을 위한 최적의 심리상태 구축에 기반이 된다(Chang-Yong, Chen, Chen, Huang, & Hung, 2012). 또한 최적의 수행을 위하여 내적으로는 자동화, 자기인식, 신뢰, 회복탄력성이 필요 요인으로 인식된다(Anderson, Hanrahan, & Mallett, 2014). 최적의 수행을 위하여 부정적 사고 차단, 내적 자극 등의 통제는 물론, 관중이나 스코어, 심판, 상대의 행동 등 외적 요인에 대처를 통해 집중 유지나 최적의 심리상태 유지 역시 중요하다(Wang, 2006). 궁극적으로 선수의 최상수행은 경기력 영향요인의 적절한 발현과 유기적 상호작용의 융합 시너지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한편 스포츠에서 성과평가나 최상수행의 조건 등은 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올림픽 동메달은 문화에 따라 올림픽에서 선수의 성공으로 평가되면서 환영받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나 문화에서는 선수나 팀의 실패 혹은 아쉬움으로 평가되기도 한다(Ziaee, van Sterkenburg, & van Hilvoorde, 2022). 이처럼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등의 메가스포츠 이벤트 성패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De Rycke & De Bosscher, 2019). 이러한 시대나 문화에 따른 스포츠 평가 관점차에는 국가나 문화의 맥락이나 역사성이 자리한다. 실제로 성공과 실패의 평가에 문화가 매개하는데, 문화적 자아에 대한 이해의 방식차가 자기계발 성향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되기도 한다(Markus & Kitayama, 1991). 실제로 중국선수는 불안 수준이 높고, 낙관성이 낮으며, 은퇴선수에 비해 현역선수의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王进, 2006). 또한 중국선수는 에너지 낭비나 다른 요인의 방해가 집중력 하락으로 이어져 불안 증폭이나 실패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王跃新, 2005).

문화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와 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가치는 생각과 행동 양상을 결정하게 한다. 이러한 문화의 특성은 개인의 신체활동이나 심리특성의 영향 요인이다(Hofstede, 2001). 비교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나 인종 등에 따른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와 행동을 비교(譚瑜, 2011)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에 따른 인간의 사고 방향을 논의한다(尧国靖 & 黄希庭, 2006). 이러한 비교문화심리학은 다문화적 시각에서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해석한다(Gergen, Gulerce, Lock, & Misra, 1996).

비교문화심리학은 스포츠에서 선수나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선수는 사회적 지향성이 높고, 중국선수는 개인적 지향성이 높다(왕봉비, 김병준, 2020). 또한 한국선수는 자신감, 주의력이 중국선수보다 높고(鄭小凤 & 何颖, 2020), 패하는 상황에서도 경기 종료까지 버티는 정신이 강하다(龔智敏, 2003). 또한 한국선수와 중국선수는 자각성과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다(馬石, 陈永欣, 李翠霞, 吴龙锡, & 李胤淑, 2013). 반면, 한국선수와 중국선수는 민족 책임의식, 민족 부흥의식, 문화적 세계화 발전 이념, 민족문화의 자신감과 자부심 제고 등의 선수육성 목표가 동일하기도 하다(崔怀猛, 苏健蛟, 赵剑平, & 慎承, 2018). 이러한 문화차에 대한 이해는 선수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 특수성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올림픽 인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특히 성과 평가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올림픽 인식이 두드러진다. 대한민국의 올림픽 평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메달리스트의 메달 중심에서 메달리스트의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Yun, 2022). 반면 중국은 올림픽을 국가 간 스포츠 총력 대결로 인식해 출전 선수는 충실한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발전시키고, 심리 상태를 조절해 메달로 국위선양의 영예를 위해 싸워야 한다(姚家新, 2006)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림픽 메달 획득을 국위선양으로 접근하던 대한민국의 올림픽 관점은 사회변동과 연결되면서 개인의 성취로 재정의되었다. 실제로 다른 국가나 문화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자국이나 자문화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를 향한 대중적 관심은 스포츠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의 확대는 스포츠는 물론 스포츠과학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나 문화 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 사이에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올림픽 경험은 같은 시상대에 서지만 환의부터 좌절까지 다양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올림픽메달리스트의 메달 획득에 따른 심리경험을 탐색하고,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차이를 비교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중국의 올림픽메달리스트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동시에 스포츠에 대한 한중 양국의 관심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baidu.com)에 올림픽메달리스트 인터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신화매일전신(新华每日电讯), 인민일보(人民日报), 광명일보(光明日报), 중국 신문보(中国新闻网), 텐센트 뉴스(腾讯新闻), 평파이 뉴스(澎湃新闻), 네이즈 뉴스(网易新闻) 등 7개 신문의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인터뷰 기사 113건을 문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금메달리스트 38

명, 은메달리스트 32명, 동메달리스트 18명 등 개인과 단체종목 선수 88명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인터뷰를 진행한 선수도 포함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바이두(baidu.com)에서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기사를 수집하였다. 인터넷은 심리학 연구와 데이터 가공에 효과적인 매체(Riva, Teruzzi, & Anolli, 2003)이다. 바이두(baidu.com)에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중국선수의 메달 획득 후 취재 기사를 개설해 인터뷰 내용이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7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의 바이두의 중국 올림픽 메달리스트 인터뷰 기사를 수집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중국 올림픽메달리스트 메달획득의 심리경험을 탐색하고, 금·은·동메달에 따른 심리경험의 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번역, 자료분석, 결과도출 순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과 번역 단계에서는 바이두(baidu.com)에서 2020 도쿄올림픽 중국선수 인터뷰 기사를 검색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한글 2014를 활용해 메달 종류와 순서, 선수 이름, 기사 내용, 기사 인용문 출처 등 관련 정보를 내용으로 한 문서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어 자료번역 단계에서는 중국어 뉴스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저자와 대한민국대표팀 선수 경력자로, 중국어 번역 경험이 있는 체육학석사가 기사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대학에 중국어교수로 재직 중인 중국 인교수가 원문과 번역본을 검토하여 번역의 적절성을 완전 협의에 이를 때까지 검토하였다.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귀납적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귀납적 내용분석 과정에서는 수집된 출전 경험의 구성개념 중 중복된 자료나 의미 분석을 통해 의미가 유사한 자료를 병합하여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범주를 추출하였다. 연구진과 스포츠심리학박사 1인, 스포츠심리학박사와 정 1인으로 전문가회의를 진행하여 귀납적범주화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Excel 2019을 활용해 원자료, 세부영역, 일반영역의 빈도를 누적하고 빈도비율을 산출하였다.

결과창출 단계에서는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 올림픽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메달에 따른 심리경험의 특징과 심리경험 빈도비율을 산출해 올림픽 메달 획득에 따른 중국선수의 심리경험 추이를 탐색하였다. 구체적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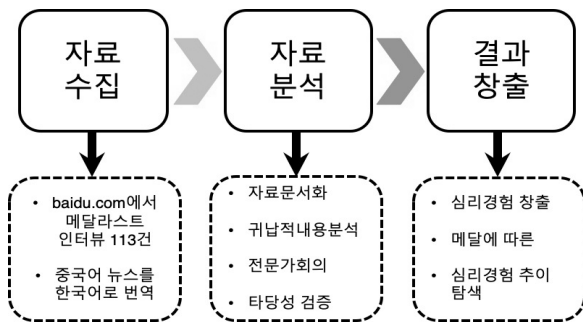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귀납적 내용분석과 Excel 2019를 활용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에서는 원자료로 추출하고 원자료의 의미 유사성에 따라 원자료를 세부영역,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Excel 2019은 메달 별 심리경험 빈도를 누적해 심리경험의 빈도비율 산출에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특징과 심리경험 추이를 토대로 결과를 서술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1. 2020 도쿄올림픽 중국메달리스트 심리경험 유형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 심리경험 탐색 결과 수집된 979개 원자료의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15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15개 세부영역은 <표 1>과 같이 대회준비, 컨디션닝 성패,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등 4개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1) 대회준비

대회준비는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한 경기 전의 과정으로 286개 원자료로 구성된다. 원자료는 목표의식, 훈련과정, 기술숙달 등 3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목표의식은 중국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싶어 하는 생각, 훈련과정은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의 노력, 기술숙달은 선수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방법이다. 대회준비와 관련해 메달리스트는 금메달 목표, 기록 세움, 금메달 꿈, 열심히 노력, 열심히 훈련, 훈련 즐거움, 부족한 부분 보충, 몸 상태 발전, 실력향상 등을 경험한다.

올림픽에서 중국은 금메달의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거국체제를 통해 원하는 금메달 수를 각 운동팀에 확실하게 전달한다(魏刚彦 et al., 2012). 올림픽 메달 획득 여부는 연습 시작과 경기 참가 연령, 주당 훈련 시간, 연습과 일반적인 연습 소요 빈도비율과 시간,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노력과 재미, 주의력 등 올림픽 준비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Franchini & Takito, 2014). 이러한 차이는 스포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육상성

수는 한국신기록 수립 경기에서 시합, 생각, 기록, 도움, 훈련 등에 집중한다(김덕현, 김현주, 윤영길, 2022). 하지만 올림픽금메달 획득 후 선수 스스로 운동 목표 재설정(윤영길, 전재연, 2010)은 한국과 중국 메달리스트의 공통적 변화이다.

대회준비는 모든 종목에서 중시된다. 실제로 양궁 경기력에 심리, 기술, 체력 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리요인으로 는 자신감, 집중력, 감정조절, 긍정적 사고 등의 준비(Kim, Kim, & So, 2015)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씨름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기 전 심리적 준비와 명확한 전술 전략(Gould, Eklund, & Jackson, 1992)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경기 전 상태가 경기력에서 중요하다는 중국선수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2) 컨디션닝 성패

컨디션닝 성패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으로 243개 원자료로 구성된다. 성공적컨디션닝, 컨디션난조, 평온한 시합, 심리 컨디션닝 등 4개의 세부영역으로 산출되었다. 성공적 컨디션닝 결과제시 컨디션난조는 실패에 대한 귀인, 평온한 시합은 시합 진행 중에서 나타나는 심리적경험, 심리컨디션닝은 실패에 대해 나타나는 심리문제이다. 컨디션닝 성패와 관련해 메달리스트는 컨디션 조절, 정상적 발휘, 실력 잘 발휘, 실력 발휘 못함, 기술 발휘 못함, 생각지 못한 결과, 부담 없음, 평안함, 평정 찾았음, 긴장했음, 부담감 큼, 적극적 싸우지 않음 등을 경험하였다.

중국 메달리스트는 긴장, 큰 부담감, 기대감 등 심리적 문제와 훈련 부족, 기술 부족, 준비 부족 등을 패인으로 언급하였다. 선수는 메달 수나 경기 결과 등 가시적 결과에 주목할 경우 올림픽 기간 부담이 커진다(Gahwiler, 2007). 이로 인한 노력부족, 능력부족, 컨디션난조, 정신력 저하, 자만심, 운, 체력 저하, 집중력 저하, 심리적 부담감 등은 시합 패배의 귀인 유형(김원배, 윤영길, 2003)으로 중국 선수가 언급한 패배 요인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올림픽 선수에 미디어 간섭, 코치 문제, 과도한 훈련 및 부상 등의 부정적 영향(Greenleaf, Gould, & Dieffenbach, 2001)이라는 추정에는 패배 귀인 유형에 문화 특수성이 매개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올림픽 출전은 선수에게 꿈의 무대로 강한 동기와 한 번의 기회라는 인식과 동시에 압박 요인이 된다. 올림픽 금메달 획득은 운동선수의 최고 성취로, 부담감이 극대화되는 도전이다(Fletcher & Sarkar, 2012). 예를 들어 일부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은 포부 수준(Houlihan & Zheng, 2013)이지만, 중국에서는 금메달 획득 후 선수의 삶이 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은메달 획득 후 심리경험 인식 결과에서 결과 만족과 아쉬움 비중이 큰 이유로 해석된다. 이처럼 금메달이 목표인 선수에게 올림픽 부담감과 높은 기대는 부메랑이 되어 컨디션닝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3) 사명감과 감사

사명감과 감사는 국가에 대한 심리적 표시로 총 226개 원자료로 구성된다. 수집된 원자료는 국위선양, 동료소통, 감사, 자부심

표 1.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범주

원자료(979)	세부영역(15)	일반영역(4)
금메달 목표(43)/기록 세움(9)/금메달 꿈(8)/자신 증명(8)/나의 전부(6)/올림픽 출전 꿈(6)/자신만의 방향 잡음(5)/좋은 성적 거두고 싶음(5)/강한 꿈(5)/다계 목표 설정(5)/메달 획득 꿈(5)/앞으로 노력(5)/끝이 아님(3)/삶 일부(3)/사상대 오름(3)/금메달 약속함(3)/올림픽 꿈(3)/가족 위한 목표(2)/결승 진출 목표(2)/새로운 출발(2)/계속 경기하고 싶음(2)/현재 자리 지키기(1)/기록 깨고 싶음(1)/롤모델 되고 싶음(1)	목표의식 (136/47.4%)	
열심히 노력(14)/열심히 훈련(10)/훈련 즐거움(10)/자기관리(9)/충분한 훈련(9)/노력(8)/운동 중목사랑(6)/착실히 훈련(4)/스트레스 해소 방식은 연습(4)/과정 중요(4)/과정 잘 준비(3)/습관된 훈련(2)/컨디션이 안 좋으면 연습(2)/준비 충분했음(2)/마인드 발전(2)/긍정마인드(2)/좋아하기에 복귀(2)/칠수록 감이 좋아짐(1)/기분 좋음(1)/슬럼프 극복(1)/긍정적 생각(1)/긍정적(1)/긍정 에너지(1)/마인드 컨트롤(1)	훈련과정 (100/34.9%)	대회준비 (286/29.2%)
부족한 부분 보충(13)/몸 상태 발전(6)/실력향상(5)/동작 질 향상(5)/경험 분석(4)/경험 쌓음(4)/중요한 경험(2)/출전 순서 조정(2)/새로운 전략(2)/위치 파악(1)/위치 조정(1)/기술 발전(1)/실력 쌓음(1)/디테일하게 처리(1)/부족한 기술 찾기(1)/동작 유지(1)	기술숙달 (50/17.4%)	
컨디션 조절(11)/정상적 발휘(11)/실력 잘 발휘(10)/컨디션 좋음(7)/경기 즐기(6)/경기 잘 진행(5)/좋은 컨디션 찾음(4)/아쉽지 않음(4)/경기느낌 좋음(3)/성적 만족(3)/신체 능력 좋음(3)/잘 해냄(3)/절정 시기(2)/전술 잘 보여줌(2)/기술 문제없음(2)/컨디션 유지(2)/동작 잘 해냄(1)/실력 잘 보여줌(1)/성적 나쁘지 않음(1)/기록 없음(1)/심리 상태 조절(1)/완벽한 플레이(1)/뒤틀림 발휘(1)/패배 기분 나쁘지 않음(1)	성공적 컨디션 (86/35.3%)	
실력 발휘 못함(13)/기술 발휘 못함(11)/생각지 못한 결과(8)/실수했음(5)/부상 문제(4)/상대방 강했음(4)/상대방 수준 높음(4)/돌발 상황 발생(3)/기술 습득 못함(3)/연습 부족(2)/실수가 많음(2)/점프 점수 낮음(1)/어려움 많음(1)/종지 않은 요소(1)/심판에게 인사하지 않음(1)/기회 잡지 못함(1)/컨디션 나쁨(1)/상대 경험 많음(1)/상대 멘탈 좋음(1)/원하는 상태 아님(1)/처음 큰 무대 서툰(1)/종목에 어려움을 겪음(1)/상대 기회 주지 않음(1)/상대 키가 월등함(1)/상대방 체중이 많음(1)	컨디션난조 (73/30.0%)	컨디션성패 (243/24.8%)
부담 없음(11)/평안함(6)/평정 찾았음(6)/평정심 유지(6)/마음 진정(5)/별 생각 없음(2)/긴장 없음(2)/편안하게 이김(2)/마음을 다짐(2)/처분함(1)/정서 진정(1)/스트레스 없음(1)/큰 부담 없음(1)/상태 관찰(1)	평온한 사합 (49/20.1%)	
긴장했음(7)/부담감 큼(5)/적극적 싸우지 않음(4)/기대감 컸음(3)/심리 문제(2)/훈련 부족(2)/스트레스가 큼(2)/어려움 있음(2)/조심스럽지 못함(1)/잘 견디지 못함(1)/마음 추스르지 못했음(1)/소극적 경기운영(1)/기술 문제(1)/경험 부족(1)/준비 못했음(1)/생각이 많았음(1)	심리 컨디션 (35/14.4%)	
국기 게양(26)/국가 올림(13)/나라 위해 노력(12)/국가 보답(7)/짙어진 명예(4)/메달 책임(4)/명예 떨치고 싶음(4)/조국 보답(4)/명예가 중요(3)/짙어진 사명감(3)/나라 명예 떨침(3)/공산당 위해 기록 갱(1)/당에 선물(1)/세계에 중국 힘 보여줌(1)/나라 명예(1)/중국 위해 최선을 다함(1)	국위선양 (88/38.9%)	
격려해줌(10)/서로 믿음(7)/많은 소통(5)/힘 합침(5)/동료 실력 믿음(3)/상호 협조(3)/팀 승리(3)/서로 이해(3)/협력으로 난관 극복(3)/팀워크(2)/팀의 도움 줌(2)/팀 동료 경험(2)/팀의 결속력(1)/팀의 노력(1)/서로 도와줌(1)/단합(1)/목표 위해 함께 노력(1)	동료소통 (53/23.4%)	
감독의 지도(9)/감독의 생각 주입(5)/감독의 격려(4)/좋은 선생님(2)/선생님 자원(2)/회장님 도움 줌(2)/가족의 믿음(2)/가족의 큰 성원(2)/가족의 희망(2)/고향의 희망(2)/부모님 감사(2)/코치님의 도움(2)/동료 감사(1)/코치님 감사(1)/팬들께 감사(1)/조국에 감사(1)/코치님 전략(1)/가족 응원(1)/훈련 시켜준 할머니(1)/가족의 희생(1)	감사 (44/19.4%)	사명감과 감사 (226/23.0%)
중국인 할 수 있음(8)/중국팀 이길 수 있음(5)/나라가 든든(5)/국가 지원(3)/위대한 조국(3)/좋은 중국 모습(2)/중국선수 의지(2)/중국팀 자랑스러움(2)/대표로 올림픽 출전(2)/조국을 자랑(1)/선수 용기(1)/선수 정신력(1)/중국인도 그런 능력 갖고 있음(1)/사명감(1)/강한 나라(1)/중국 육상 기원(1)/중국 복식 정상(1)/중국 육상 돌파(1)	자부심 (41/18.1%)	
최선 다함(32)/포기하지 않음(19)/자신과의 싸움(10)/도전(6)/과감하게 싸움(5)/심리 문제 극복(5)/고생으로 견뎌(4)/용감히 싸움(3)/주동 공격(3)/정신력 있음(3)/끝까지 싸움(3)/의지력 있음(3)/대담한 경기(2)/열정 있음(2)/고통스럽지 않음(1)/전력 다함(2)/결심(2)/초심 잃지 않음(2)/동메달 정탈전 있음(1)/착실하게(1)/후회 남기지 않음(1)/전력투구(1)/열심히 싸움(1)/헤아릴 수 없는 관계(1)/많은 용기가 필요(1)/인내심 필요(1)	투지 (115/51.3%)	
자신이 있음(19)/자신 믿음(9)/이길 수 있음(6)/두렵지 않음(6)/실력 보여줌(6)/우승 어렵지 않음(2)/멀리 던질 수 있음(1)/멘탈이 강함(1)	자신감 (50/22.3%)	경기운영 주도권 (224/22.8%)
집중(10)/결과 생각하지 않음(8)/상대 신경 쓰지 않음(8)/잡념 없음(3)/몰입(3)/침착했음(2)	경기집중 (34/15.1%)	
운 좋음(7)/상대방과 심리전(3)/상대방 실수(2)/운동신경 타고남(1)/상대 실력 부족(1)/괜찮다고 스스로 말해줌(4)/심리 변화 주의(2)/연기가 기회가 됨(2)/우승 이루지 못함(2)/기회가 됨(1)	상태압도 (25/11.1%)	

등 4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국위선양은 국가 위해서 노력, 동료소통은 팀동료에 대한 서로의 소통, 감사는 주요타자의 지지 에 대한 감사 표시, 자부심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다. 사명감과 감사와 관련해 메달리스트는 국기 게양, 국가 올림, 나라 위해 노력, 격려해줌, 서로 믿음, 많은 소통, 감독의 지도, 감독의 생각 주입, 감독의 격려, 중국인 할 수 있음, 중국팀 이길 수 있음, 나라가 든든 등을 경험하였다.

중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집단적 정체성과 자기평가가 긍정적으로, 훈련과 우승 과정에서 각종 애국주의 교육 활동과 슬로

건이 올림픽 우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중국적이고 뚜렷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해 투혼을 발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애국심이 발현되는 변화를 보여준다(张龙, 孟刚, & 郭朝廷, 2013). 메가스포츠 이벤트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확립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Lu & Hong, 2013). 실제로 중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라를 빛내다 또는 영예 등으로 표현한 자신의 정체성은 1990년대까지 지속된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국가를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선수의 성공은 가족의 지지, 지도자의 격려와 지도, 팀 종목의

경우 구성원 간의 협력이 승리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선수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본인, 구성원 등이 있는데, 특히 지도자와 가족들의 영향이 중요(Gould, Dieffenbach, & Moffett, 2002)하다. 특히 지도자는 선수의 자의식, 자신감, 불안, 자율성과 동기부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Kim & Park, 2020)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적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다(Cook, Fletcher, & Carroll, 2021). 팀 종목의 경우 팀워크, 팀 전력, 지도자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은 선수의 심리자본 형성에 기여한다(윤영길, 전재연, 2015).

사명감은 메달리스트의 중국 체육계 특수성을 반영한다. 국가 정체성과 글로벌 생활연구에서 중국인은 84%가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89%가 자신이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Shu & Zhu, 2009). 메가스포르츠 이벤트에서 중국선수가 성적을 거두면 중국인의 자랑스러운 생각이 강화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에서 선수의 성적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고, 나아가 탁월한 경기력의 선수가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과 총장 영접 등 특별대우를 받는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국가, 성, 시 등 각급 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선수의 사명감과 운동 열정을 촉진시킨다.

중국선수는 올림픽 무대에 오성홍기를 게양하기 위하여 신념, 끈기,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내재화한다. 중국선수는 자신의 노력으로 올림픽 경기장에 국기를 게양하는 순간을 영광으로 여기고 끈질긴 신념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신념과 노력은 운동선수가 국가 정체성과 사명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이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정신적 지지점이다. 사실 중국에서 선수선발은 전수조사에 가깝게 진행된다. 우선 신체조건에 따라 선수를 선발하고, 선발된 선수를 대상으로 집중적 지원과 훈련을 진행하고, 의식주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러한 체계로 중국선수의 올림픽 출전 성적은 국가의 지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국가에 보답하고 싶어 한다.

4) 경기운영 주도권

경기운영 주도권은 경기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224개 원자료로 구성된다. 수집된 원자료는 투지, 자신감, 경기집중, 상대 압도 등 4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투지는 시합에 대한 정신력, 자신감은 시합에 대한 자기실력의 믿음, 경기집중은 시합장에서 한눈 팔지 않는 상태, 상대압도는 경기할 때 마주하는 심리이다. 경기운영 주도권과 관련해 메달리스트는 최선 다함, 포기하지 않음, 자신과의 싸움, 자신이 있음, 자신 믿음, 이길 수 있음, 집중, 결과 생각하지 않음, 상대 신경 쓰지 않음, 운 좋음, 상대방과 심리전, 상대방 실수 등을 경험한다.

경기의 승패 확률은 경쟁선수 간 동일하지만 심리적 모멘텀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심리적 모멘텀 전략이 있는 선수의 승리 확률이 높고(전재연, 윤영길, 김영숙, 박상혁, 2019),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긍정적태도, 동기, 자신감, 집중력 등에 차별성이 있다(Fletcher & Sarkar, 2012). 또한 객관적 전력이 좋지 않는 선수의 성취에는 긴장 조절이나 심리적 준비가 중요하다(Orione, Fleith,

& Veloso, 2021). 실제로 메가스포르츠 이벤트에서 심리적 준비는 신체적 준비 이상으로 중요(Burns, Weissensteiner, & Cohen, 2019)하고, 최정상 선수의 승부에 불안 대처 능력, 자신감, 심리적 근성, 집중력, 경쟁력, 목표 설정 능력, 높은 수준의 희망과 낙관이 영향을 미친다(Gould, Dieffenbach, & Moffett, 2002; Hanin, 2000).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경기 주도권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서 심리기술과 준비, 올림픽에 대한 태도, 지원 서비스 및 다각적인 준비, 신체 준비 등(Greenleaf et al., 2001)은 경기 주도의 토대가 된다. 압박 상황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신감, 희생 능력, 끈기, 동기부여(Fuentes et al., 2020)는 상대를 압도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운 역시 경기 주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Csurilla & Sterbenz, 2018), 경기 영향력은 정량화할 수 없다(Csurilla, Gyimesi, Kendelényi-Gulyás, & Sterbenz, 2021). 실제로 심리자본은 경기 주도권에 중요하다. 심리자본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고(Lee, Wang, Huang, Hsu, & Chien, 2022), 운동선수로 성장에 필요한 집중력, 자신감, 적극성(Gould, Eklund, & Jackson, 1993)을 강화한다. 또한 중국선수의 경기력 발현에 중시되는 자신, 동기, 정서, 주의, 의지, 인지, 심리적 피로, 대인관계(張力为, 2006)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기운영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운영 주도권은 경기 결과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2.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 비율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일반 영역 빈도비율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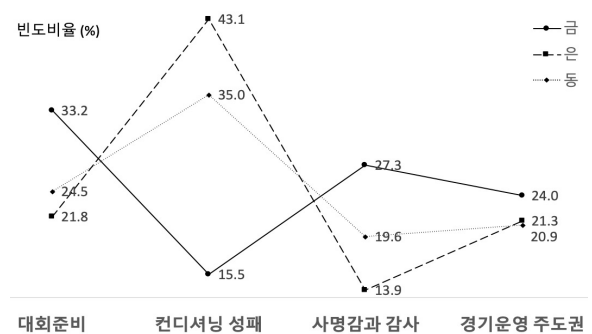


그림 2. 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빈도비율

일반영역 수준에서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대회준비,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컨디션 성패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비율에 따르면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메달리스트는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컨디션으로 토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풀어갔다. 또한 올림픽 금메달 성취 결과에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은메달과 동메달의 빈도비율을 비교했을 때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위한 사명감 있는 대회준비와 경기운영 주도권의 중요성, 올림픽 금메달 성취에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귀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은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컨디션닝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사명감과 감사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비율에 따르면 2020 도쿄올림픽 중국 은메달리스트는 컨디션닝에 실패하고, 결승에서 경기운영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대회준비 부족으로 자평하고 있다. 동시에 사명감이나 감사는 상대적으로 크게 언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금메달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대회준비가 부족했고, 경기운영 주도권을 잃었으며, 특히 컨디션닝에 크게 실패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은메달리스트의 사명감이나 감사 빈도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은 흥미롭다. 반면 동메달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경기운영 주도권 빈도비율은 유사하지만 대회준비, 컨디션닝 실패, 사명감과 감사의 빈도비율은 낮아 은메달리스트는 동메달리스트에 비해 메달 획득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컨디션닝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사명감과 감사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비율에 따르면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동메달리스트는 컨디션닝에 실패했으나 회복했고, 적절한 수준으로 대회를 준비했지만, 경기운영 주도권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또한 사명감이나 감사하는 마음은 있으나 동메달이라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양상을 보인다. 금메달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대회준비,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빈도비율은 낮은 반면, 컨디션닝 성패 빈도비율은 높아 컨디션닝에 실패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또한 은메달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대회준비, 사명감과 감사 빈도 비율은 높은 반면 컨디션닝 성패, 경기운영 주도권의 빈도비율은 낮다.

한편 일반영역 수준에서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다음과 같다. 대회준비는 금 33.2%, 동 24.5%, 은 21.8%로 금, 동메달리스트에 비해 은메달리스트는 준

비 언급 빈도비율이 낮다. 컨디션닝 성패는 은 43.1%, 동 35.0%, 금 15.5%로 은, 동메달리스트는 금메달리스트에 비해 컨디션닝 실패 언급 빈도비율이 높다. 사명감과 감사는 금 27.3%, 동 19.6%, 은 13.9%로 금, 동메달리스트에 비해 은메달리스트는 언급 빈도비율이 낮다. 경기운영 주도권은 금 24.0%, 은 21.3%, 동 20.9%로 금, 은, 동 순의 빈도비율을 보인다. 이는 경기에서 주도권 확보와 경기력이 연동될 개연성을 시사한다.

2)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양상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그림 3>과 같다.

세부영역 수준에서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세부영역의 목표의식, 훈련과정, 성공적컨디션닝, 자부심, 투지 등은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구분 없이 공동적으로 빈도비율이 높은 심리경험이다. 이는 올림픽 성취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반면, 기술숙달, 컨디션난조, 심리컨디션닝, 국위선양, 자신감 등은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사이 심리경험 빈도비율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메달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서의 심리경험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적에 따른 선수의 귀인 유형 차이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목표의식, 투지, 훈련과정, 국위선양, 성공적컨디션닝, 기술숙달, 동료소통, 평온한 시합, 감사, 자신감, 경기집중, 자부심, 상대압도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금메달리스트에게는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컨디션닝, 컨디션난조는 없었다. 목표의식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취의 요인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심리컨디션닝과 컨디션난조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과 대회 중에 경험했으나 올림픽 성과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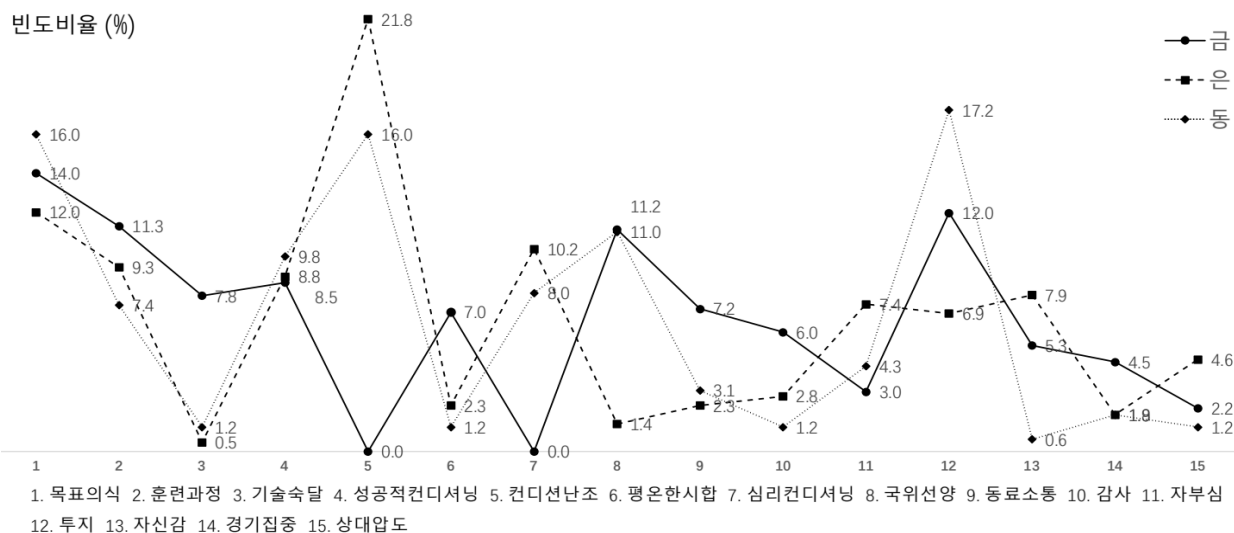


그림 3. 금·은·동 메달리스트 심리경험 세부영역 빈도비율

선수의 해석과 평가 결과로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은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 비율은 컨디션난조, 목표의식, 심리컨디션, 훈련과정, 성공적컨디션, 자신감, 자부심, 투지, 상대압도, 감사, 동료소통, 평온한 시합, 경기집중, 국위선양, 기술숙달 순으로 나타났다. 은메달리스트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컨디션에 실패하여 결승전에서 컨디션난조에 빠져 패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은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중 컨디션난조의 빈도비율이 21.8%라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컨디션난조로 결승전에서 패했거나, 결승전 패배를 컨디션난조에 귀인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는 동메달리스트보다 덜 행복한 은메달리스트(Medvec, Madey, & Gilovich, 1995)의 원인이기도하다. 컨디션난조로 인한 패배라면 컨디션의 문제이지만 다른 이유를 컨디션난조로 해석하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 비율은 투지, 목표의식, 컨디션난조, 국위선양, 성공적컨디션, 심리컨디션, 훈련과정, 자부심, 동료소통, 경기집중, 상대압도, 감사, 평온한 시합, 기술숙달, 자신감 순으로 나타났다. 동메달리스트는 금메달리스트나 은메달리스트에 비해 컨디션난조, 투지, 목표의식의 상대적 빈도비율이 높다. 이는 컨디션난조가 있었지만 투지를 발휘해 경기에 임했고, 결승이 좌절되었지만 동메달이라도 획득하기 위해 목표의식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기술숙달, 감사, 자신감, 상대압도 등에서는 낮은 빈도비율을 보인다. 이는 금메달이나 은메달리스트에 비해 경기를 압도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 빈도비율에서 컨디션난조와 심리컨디션, 국위선양과 투지는 주목할 만하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 컨디션난조와 심리컨디션의 빈도비율은 각각 금 0%, 은 16.0%, 동 21.8%와 금 0%, 은 8.0%, 동 10.2%이다. 금메달리스트는 대회에 아쉬움이 없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은, 동메달리스트는 실패 생각과 아쉬움이 있다. 은메달리스트는 실력 발휘 못함, 실수, 부상, 돌발상황 등을 컨디션난조 원인으로 생각한다. 또한 긴장감, 기대감, 훈련 부족, 부담감 등으로 인한 심리컨디션 문제에 귀인한다. 동메달리스트 또한 다르지 않은데 기술구사 문제, 연습 부족, 실수 등을 컨디션난조의 원인으로 생각한다. 또한 긴장감,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리컨디션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위선양에서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금 11.2%, 은 11.0%, 동 1.4% 등으로 높게 나타난다. 국위선양은 메달리스트의 메달 인식을 다르게 한다. 실제로 금메달리스트는 국위선양과 관련해 국가게양, 나라 위해 노력, 국가 올림, 동메달리스트의 명예 떨치고 싶음, 조국 보답 등을 이야기하지만,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 획득 실패에 자책감과 실망감을 표한다. 이는 투지의 빈도비율과 연동해 시사할 남긴다. 투지의 빈도비율이 금 12.0%, 은 6.9%, 동 17.2%로 나타난다. 이는 금메달리스트는 성과를 거둘 만큼의 투지를 발휘

해 경기했고, 동메달리스트는 동메달 획득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반면, 은메달리스트는 결승전에서 자신의 투혼과 혼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는 금메달 중심주의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과 심리경험 양상을 탐색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 심리경험 탐색 결과 979개 원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의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목표의식, 훈련과정, 기술숙달, 성공적컨디션, 컨디션난조, 평온한 시합, 심리컨디션, 국위선양, 동료소통, 감사, 자부심, 투지, 자신감, 경기집중, 상대압도 등 15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15개 세부영역은 의미 유사성에 따라 유목화해 대회준비, 컨디션 성패,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등 4개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은 일반영역의 범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최선을 다해 2020 올림픽을 준비했고,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컨디션나하면서 경기에서 경기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에 감사한다.

둘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일반영역의 빈도비율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금메달리스트는 대회준비,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컨디션 성패 순으로, 은메달리스트는 컨디션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사명감과 감사 순으로, 동메달리스트는 컨디션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사명감과 감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영역 수준에서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 양상과 관련해 대회준비는 금, 동메달리스트에 비해 은메달리스트의 비율이 낮고, 컨디션 성패는 은, 동메달리스트에 비해 금메달리스트의 비율이 낮으면, 사명감과 감사는 금, 동메달리스트에 비해 은메달리스트는 언급 비율이 낮다. 경기운영 주도권은 은, 동 순의 빈도비율을 보인다. 일반영역의 빈도비율은 경기에서 주도권 확보와 경기력이 연동될 개연성을 시사한다.

셋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세부영역의 목표의식, 훈련과정, 성공적컨디션, 자부심, 투지는 금·은·동메달리스트 구분 없이 빈도비율이 높은 심리경험으로 올림픽 성취에 영향을 시사한다. 반면, 기술숙달, 컨디션난조, 심리컨디션, 국위선양, 자신감 등은 금·은·동메달리스트 간 심리경험 빈도비율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메달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심리경험, 성적에 따른 선수의 귀인 유형 차이로 해석된다. 메달 별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금메달리스트는 목표의식, 투지, 훈련과정, 국위선양, 성공적컨디션을, 은메달리스트는 컨디션난조, 목표의식, 심리컨디션, 훈련과정, 성공적컨디션을, 동메달리스트는 투지, 목표의식, 컨디션난조, 국위선양, 성공적컨디션 등이 높게 나타났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 심리경험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 빈도비율에서 컨디션난조와 심리컨디션의 빈도비율은 시사를 남긴다. 컨디션난조의 응답빈도비율은 금메달 0%인 반면, 은 16.0%, 동 21.8%로 구체적으로 실력 발휘 못함, 실수, 부상, 돌발상황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컨디션의 응답빈도비율은 금메달 0%인 반면 은 8.0%, 동 10.2%로 구체적으로 긴장감, 기대감, 스트레스, 부담감 등을 언급하고 있다. 향후 컨디션난조와 심리컨디션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결과인지, 결과에 대한 귀인 방식인지를 주제로 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둘째, 국위선양은 메달리스트의 메달 인식을 다르게 하는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검토는 경기력 영향요인의 정확한 이해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메달리스트는 국위선양과 관련해 국기 게양, 나라 위해 노력, 국가 올림, 동메달리스트는 명예 떨치고 싶음, 조국 보답 등의 심리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 획득 실패에 자책감과 실망감을 표한다. 이는 금 12.0%, 은 6.9%, 동 17.2%인 투지의 빈도비율과 연동해 시사를 남긴다. 은메달리스트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은메달리스트의 투지나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선수 보호책으로 기능할 것이다. 은메달리스트를 재조명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셋째, 선수의 성취와 성과 인식에서 문화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는 국위선양의 사명감을 심리경험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이전 대한민국 체육계가 국가적 수준에서 컨센서스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 중심으로 사회가 변동하면서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성취가 국가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성취로 재정의되었다. 국가나 국민의 스포츠 성취에 대한 인식 변화는 스포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중국 올림픽메달리스트의 국위선양 사명감과 대한민국 올림픽메달리스트의 개인 성취패러다임이 국가나 국민의 메가스포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체육계가 국가나 국민적 차원에서 지지받는 정당성의 논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덕현, 김현주, 윤영길(2022). 육상선수의 한국신기록 수립 기여요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33(2), 25-40.

김원배, 윤영길(2003). 한국형 스포츠 귀인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1), 27-49.

김현주, 윤영길(2017). 올림픽메달 획득 경험이 만든 심리자본. **체육과학연구**, 28(2), 461-473.

왕봉비, 김병준(2020). 한국과 중국 대학선수의 스포츠 목표성향과

성취동기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9(3), 85-96.

유현숙(2005). 여성자본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4(2), 225-259.

윤영길, 전재연(2010). 올림픽 출전 경험의 심리적 영향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3), 93-109.

윤영길, 전재연, 양은심(2012). 올림픽금메달이 남긴 심리적 외상. **체육과학연구**, 23(4), 833-844.

전재연, 윤영길, 김영숙, 박상혁(2019).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의 심리적 모멘텀 전략 탐색. **체육과학연구**, 30(4), 888-906.

최은경, 윤영길(2010). 선수 경험이 남긴 생활기술(Life Skill)과 트라우마(trama).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123-132.

Anderson, R., Hanrahan, S. J., & Mallett, C. J. (2014). Investigating the optimal psychological state for peak performance in australian elite athlete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6(3), 318-333.

Burns, L., Weissensteiner, J. R., & Cohen, M. (2019). Lifestyles and mindsets of olympic, paralympic and world champions: is an integrated approach the key to elite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53(13), 818-824.

Chang-Yong, C., Chen, I. T., Chen, L. C., Huang, C. J., & Hung, T. M. (2012). Sources of psychological states related to peak performance in elite table tennis players. *International Journal of Table Tennis Sciences*, 7, 86-90.

Coakley, J. (2011). Ideology doesn't just happen: Sports and neoliberalism. *Revista da Associação Latinoamericana de Estudios Socioculturales del Deporto*, 1(1), 67-84.

Cohn, P. J. (1991). An exploratory study on peak performance in golf. *The sport psychologist*, 5(1), 1-14.

Cook, G. M., Fletcher, D., & Carroll, C. (2021). Psychosocial functioning of olympic coaches and its perceived effect on athlete performance: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4(1), 278-311.

Csurilla, G., & Sterbenz, T. (2018). A bizonytalanság szerepe a sportban (The Role of Uncertainty in Sport). *Magyar Sporttudományi Szemle*, 19(77), 18-22.

Csurilla, G., Gyimesi, A., Kendelényi-Gulyás, E., & Sterbenz, T. (2021). Where is victory most certain? The level of luck-based noise factor in summer olympic games. *Acta Oeconomica*, 71(3), 369-386.

De Rycke, J., & De Bosscher, V. (2019). Mapping the potential societal impacts triggered by elite sport: A conceptu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11(3), 485-502.

- Fletcher, D., & Sarkar, M. (2012). A grounded theory of psychological resilience in olympic champion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3(5), 669-678.
- Franchini, E., & Takito, M. Y. (2014). Olympic preparation in Brazilian judo athletes: Description and perceived relevance of training practices. *The Journal of Strength & Conditioning Research*, 28(6), 1606-1612.
- Fuentes, C. A., Gullón, J. M. L., Belmonte, M. J. B., Ferri, J. M. V., Sánchez, S. A., & Berengui, R. (2020). Psychological dimension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panish olympic wrestler. *Anales de Psicología/Annals of Psychology*, 38(3), 553-560.
- Gahwiler, C. (2007). Psychological preparation of the 2004 south african olympic team. *South Af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19(3), 68-73.
- Gergen, K. J., Gulerce, A., Lock, A., & Misra, G. (1996). Psychological science in cultural context. *American Psychologist*, 51(5), 496.
- Gould, D., Dieffenbach, K., & Moffett, A. (2002).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ir development in Olympic champion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3), 172-204.
- Gould, D., Eklund, R. C., & Jackson, S. A. (1992). 1988 US Olympic wrestling excellence: I. Mental preparation, precompetitive cognition, and affect. *The Sport Psychologist*, 6(4), 358-382.
- Gould, D., Eklund, R. C., & Jackson, S. A. (1993). Coping strategies used by US olympic wrestler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4(1), 83-93.
- Greenleaf, C., Gould, D., & Dieffenbach, K. (2001). Factors influencing olympic performance: Interviews with atlanta and negano US olympian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3(2), 154-184.
- Hanin, Y. (2000). *Emotions in sport*, Human Kinetics.
- Harung, H. S., Heaton, D. P., Graff, W. W., & Alexander, C. N. (1996). Peak performance and higher states of consciousness: a study of world-class performer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1(4), 2-23
- Henriksen, K., Schinke, R., McCann, S., Durand-Bush, N., Moesch, K., Parham, W. D., ... & Hunziker, J. (2020). Athlete mental health in the olympic/paralympic quadrennium: a multi-societal consensus stat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8(3), 391-408.
- Hofstede, G. J. (2001). Adoption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national culture. *Systèmes d'information et Management*, 4(3), 55-74.
- Houlihan, B., & Zheng, J. (2013). The olympics and elite sport policy: Where will it all e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30(4), 338-355.
- Jackson, S. A., & Roberts, G. C. (1992). Positive performance states of athletes: Toward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peak performance. *The Sport Psychologist*, 6(2), 156-171.
- Jackson, S. A., Dover, J., & Mayocchi, L. (1998). Life after winning gold: I. experiences of australian olympic gold medalists. *The Sport Psychologist*, 12(2), 119-136.
- Kim, H. B., Kim, S. H., & So, W. Y. (2015). The relative importance of performance factors in Korean archery. *The Journal of Strength & Conditioning Research*, 29(5), 1211-1219.
- Kim, Y., & Park, I. (2020). "Coach really knew what I needed and understood me well as a person" : effective communication acts in coach-athlete Interactions among korean olympic ar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9), 3101.
- Lee, T. I., Wang, M. Y., Huang, B. R., Hsu, C. Y., & Chien, C. Y. (2022).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sport anxiety on sport performance in collegiate judo athlete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46(2), 197-208.
- Lu, Z., & Hong, F. (2013). *Sport and nationalism in China*. New York, Routledge.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 Medvec, V. H., Madey, S. F., & Gilovich, T. (1995). When less is more: Counterfactual thinking and satisfaction among olympic medal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603.
- Orione, L., Fleith, D. D. S., & Veloso, F. (2021). The role of psychosocial support training in sports talent development. *Gifted and Talented International*, 1-13.
- Privette, G. (1981). Dynamics of peak performanc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1(1), 57-67.
- Riva, G., Teruzzi, T., & Anolli, L. (2003). The use of the internet in psychological research: Comparison of online and offline questionnaires. *Cyber Psychology & Behavior*, 6(1), 73-80.
- Shu, X., & Zhu, Y. (2009). The quality of life in Chi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92(2), 191-225.
- Wang, J. (2006). Mental strategies for peak performance. *Strategies*, 19(4), 22-25.
- Wylleman, P., Reints, A., & Van Aken, S. (2012). Athletes' perceptions of multilevel changes related to competing at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3(5), 687-692.

Yun, Y. K. (2022). *Change & current affairs of psychological football environment*.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 Football 2022 Program book. 95-106.

Ziaee, A., van Sterkenburg, J., & van Hilvoorde, I. (2022). Female elite sports achievements in iran. the case of the first olympic medalist.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10126902221088124.

姒刚彦, 张忠秋, 张春青, 章崇会, 赵大亮, & 苏宁(2012). 中国运动员备战2008年北京奥运会的心理服务. *中国体育科技*, 48(04), 3-20.

姚家新(2006). 2008年奥运会我国运动员心理问题研究. 首届中国体育博士高层论坛论文集.

尧国靖, & 黄希庭(2006). 比较文化心理学的性质. *西华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1), 5.

崔怀猛, 苏健蛟, 赵剑平, & 慎承允(2018). 中韩高校武道专业培养目标及课程设置研究——以武术和跆拳道为例. *北京体育大学学报*, 41(05), 131-138.

张力为(2006). 运动员备战2008年北京奥运会的心理问题. *北京体育大学学报*, (06), 721-725.

张龙, 孟刚, & 郭朝廷(2013). 奥运会田径项目金牌时空动态演变分析. *中国体育科技*, 49(5), 17-27

焉石, 陈永欣, 李翠霞, 吴龙锡, & 李胤淑(2013). 中、韩优秀速滑运动员意志品质的比较研究. *山东体育科技*, 35(05), 38-41.

王跃新(2005). 如何赢得奥运会上的心理战. *体育科技文献通报*, (01), 22.

王进(2006). 从过程理论观点探索我国运动员的退役(III)——社会支持与退役教育的构想. *体育科学*, 17(08), 24+52.

谭瑜(2011). 跨文化心理学与文化心理学比较. *吉首大学学报(社会科学版)*, 32(01), 170-172.

郑小凤, & 何颖(2020). 中韩男子短道速滑1500 m战术定位与滑行节奏的对比研究. *成都体育学院学报*, 46(1), 121-126.

龚智敏(2003). 第17届世界杯足球赛中,日、韩3国足球队技、战术分析. *中国体育科技*, 39(8), 45-47.